

Mitsui, PTA 320만톤 생산체제

2008년까지 타이 No.4 플랜트 건설 ... 중국-타이 FTA 겨냥

일본 Mitsui Chemicals이 타이에 No.4 PTA(Purified Terephthalic Acid) 플랜트 건설에 나설 방침이다.

Mitsui는 타이 Map Ta Phut의 PTA 생산거점에 현재 건설중인 No.3 50만톤 플랜트에 이어 No.4 60만톤 플랜트를 건설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타이의 No.3에 이은 PTA 생산설비로서 중국 江蘇省 張家港에 60만톤 플랜트를 건설하기 위한 FS에 들어갔으나, 중국과 타이가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하면 세계 최대의 PTA 거점으로 인프라가 정비되는 타이거점의 우위성이 부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차기 생산능력 확대가 유력한 Option으로 중국거점과 함께 타이 4호기 건설에 대해서도 검토해나갈 방침이다.

타이의 No.3 플랜트가 가동된 후 2005년 가을에는 PTA 생산능력이 Iwakuni 75만톤(3라인), 인도네시아 45만톤, 타이 140만톤(3라인)을 합쳐 총 260만톤 생산체제로 확대된다. 더욱이 이미 몇십만톤의 판매실적을 지닌 중국에 거점을 설립함으로써 빠르면 2008년 320만톤 생산체제가 완성될 전망이다.

다만, 중국 고유의 Country Risk 등을 주시하면서 장래에 중국과 타이간 FTA가 체결되면 인프라가 정비된 타이의 기본거점 증설을 통해서도 비슷한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타이에 No.4 플랜트 건설을 검토해나갈 방침이다.

<화학저널 2004/07/06>